

# 울산,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최고

환경부, 벤젠·VCM이 주범 ... 화학물질 배출은 전남이 가장 높아

화학물질은 전남 지역에서, 발암물질은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01년 한해 동안 전국의 50인 이상 화학물질 배출업소 1023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남이 715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6858톤, 경북 5763톤, 경남 3175톤 순으로 집계됐다.

배출량이 적은 자치단체는 대전(5톤), 강원(9.6톤) 등이었으며, 제주는 전혀 없었다.

전남, 울산, 경북 지역의 배출량이 많은 것은 해당지역에 전체 배출량의 81.1%를 차지하는 산업단지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석유정제·화학업종이 밀집된 울산 미포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배출량의 1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여수산업단지(10.0%), 포항산업단지(9.3%)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가운데 발암물질 배출량은 울산이 654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612톤), 경북(216톤), 충남(122톤) 순이었다.

울산과 전남에서 다량 배출된 발암물질은 벤젠과 염화비닐(Vinyl Chloride)로 각각 전체 발암물질 배출량의 95%를 차지했으며, 경북은 크롬화합물이 전체 발암물질 배출량의 85%를 차지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16>